

6/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

김보경



결혼 기자 회견장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고무로 부부

출처: ORICON NEWS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기자 회견 영상(<https://youtu.be/pngmVWzMrSU?feature=shared>).

김보경(金普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学)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일본 영화와 일본 근현대문학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이토 다이스케(伊藤大輔) 영화의 주관 묘사 재고: 영화 <슌킨 이야기>(春琴物語, 1954)를 중심으로」(2023), 「GHQ 점령 후기 일본의 영화 윤리 규정에 관한 연구: 『영화 윤리 규정 심사 보고』(제1호~제19호)를 중심으로」(2023) 등이 있고, 공저로 『일본자본주의 위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회인가?』(2023), 『일본의 재난문화와 문화』(2018), 역서로는 『음예 예찬』(202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4.30.192>

1. 주간지가 주도한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

최근까지 일본 황실과 관련된 뉴스로 일본 국내외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역시 나루히토(德仁) 천황의 조카인 마코 내친왕(眞子内親王, 이하 마코 공주로 표기)의 결혼일 것이다. 마코 공주는 나루히토 천황의 동생이자 현재 일본의 황태자(皇嗣)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文仁)의 장녀로 태어났다. 가쿠슈인(学習院) 초등과와 여자중·고등과를 거쳤으나 대학은 황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제기독교대학(國際基督教大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 교내에서 열린 교환 유학 설명회에서 현재의 배우자 고무로 게이(小室圭)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캠퍼스 커플이 결혼에 골인한 평범하면서도 흐뭇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우선 궁내청(宮内庁)의 정식 발표가 있기도 전에 주간지와 방송국의 특종으로 연애와 약혼 내정 사실이 공개되어 버렸고, 몇 개월 뒤에야 약혼 내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실의 경사에 축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더니 이번에도 주간지에 의해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가 보도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 끝을 모르고 쏟아지는 추측과 의혹, 비난 속에서 결국 2018년 2월 6일, 당시의 아키히토(明仁) 천황이 이미 재가(裁可)를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코 공주의 결혼을 2020년으로 연기한다고 궁내청이 공표하였다. 이후 고무로는 로스쿨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디어는 여전히 다양한 가십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모친의 빚을 포함한 문제들을 고무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이 결혼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코 공주는 변함없이 확고한 결혼 의사를 밝혔고 고무로는 모친의 금전 문제를 해명하는 문서를 공표했다. 그럼에도 미디어의 논조와 과도한 관심은 바뀌지 않았고, 2021년 10월 1일 궁내청은 마코 공주가 '복잡성 PTSD'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일체의 결혼 의식과 황적 이탈 시 지급되는 일시금(一時金) 없이, 마코 공주와 고무로 게이는 시부야구(渋谷区)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고, 11월 14일에는 일본을 떠나 미국 뉴욕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마코 공주의 결혼을 크게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일본의 미디어가 현재 황실이 안고 있는 과제를 반영하여 이 결혼을 문제화한 방식, 둘째로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고무로 배싱(bashing)이 전개된 원인과 미디어가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의 양상, 셋째로 이번 스캔들에서 미디어 보도에 대한 황실의 태도와 그것이 레이와 이후 황실이 미디어 및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에 시사하는 바이다.

일본 황실의 스캔들을 들여다보면서 미디어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황족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디어를 통한 표상으로서만 대중에게 인식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천황과 황족의 표상을 접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때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대중 사이에서 반복 및 증폭을 거치며 재생산되기도 한다.¹ 둘째, 모든 스캔들은 여러 사건들로 직조된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서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² 미디어는 여러 흩어진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유형으로 엮고, 시청각적인 묘사와 보도의 톤, 특정 측면의 강조를 통해 스캔들 서사를 일정한 프레임에 끼워 넣어 특정한 의미로의 해석을 제안한다.³

특히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에 관한 미디어 보도의 프레임은 일본사회에서 황실에 기대되는 바와 오래전부터 일본 황실의 존립 방식을 둘러싸고 문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

- 1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講談社選書メチエ), 講談社, 2022, 17쪽.
- 2 Igor Prusa, *Scandal in Japan: Transgression, Performance and Ritual*, Kindle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23, p. 5.
- 3 Igor Prusa, *Scandal in Japan*, p. 18.

다. 그 배경에는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이 헤이세이(平成)가 저무는 때에 시작하여 레이와(令和)라는 새로운 시대에 끝났다는 시기적인 절묘함이 있다.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개원(改元)은 2016년 아키히토 현 상황(上皇)이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직접 ‘생전퇴위’의 의사를 밝힌 후 불거진 천황·황실의 의미와 존속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400만 엔의 빚’, ‘부친의 자살’, ‘사법시험 불합격’, 황실의 돈을 노린 ‘기둥서방’(ヒモ男) 등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평민’ 남성 고무로와 마코 공주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했고, 이것을 미디어가 황족의 품위, 황실 비용, 여성 황족의 결혼과 황실 이탈, 황실의 존속 등의 문제와 함께 다루면서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점차 이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사로 ‘할지 말지’를 정하는 사적(私的)인 문제가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하는 공적(公的)인 영역의 문제로 변해 갔다. 이처럼 일본의 미디어는 여성 황족과 황실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마코 공주의 결혼 문제에 능숙하게 포개면서 이 스캔들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한편으로, 이 스캔들에서 마코 공주를 포함한 레이와 황실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일본에서 황족과 황실이 어떤 존재로 자리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거리를 던진다. 가학적이라 할 만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레이와 황실의 합의 아래 마코 공주와 고무로는 결혼을 관철해 냈고, 미디어 보도를 향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는 헤이세이 황실에서는 선례를 찾기 힘든 태도였다. 게다가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이른바 ‘국민’의 여론도 반드시 미디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관찰된다.

다시 말해, 마코 공주 결혼 스캔들의 미디어 보도와 이에 대한 반응 및 대응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포착되는 황실과 미디어가 지금까지 맺어 온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⁴ 이를 위해

4 일본의 천황 및 황실·황족의 미디어 표상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있다. 우선 천황과 미디어의 관계에 주목한 선구적인 논고로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圭一)의 「대중천황제론」(大衆天皇制論)이 있고(松下圭一, 「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卷5号, 中央公論新社, 1959, 30~47쪽), 1990년

서, 먼저 전통적인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잡지 기사를 분석한다. 2020년대의 스캔들을 다루면서 SNS가 아닌 전통적 미디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표상 및 서사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통제·검열되지 않은 실제 여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SNS가 흥미로운 검토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에서 스캔들 서사의 전개를 이끄는 가시적인 힘은 여전히 전통적 미디어가 압도적이며, SNS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력하다.⁵ 마코 공주의 결혼을 둘러싼 스캔들 또한 황실 보도와 스캔들 관련으로 전통을 지닌 주간지가 발단을 제공했으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적과 보도로 이를 확장시켜 갔다. SNS의 역할은 이들 기성 미디어의 보도를 확산시키고, 때로는 밈(meme) 등을 통한 재생산과 유희적 향유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다. 또 전통적 미디어는 이처럼 SNS상의 반응에 드러난 대중의 욕

대에 들어와서는 야스다 쓰네오(安田常雄)가 전후 일본의 천황 표상을 천황과 대중의 협력적 산물로 평가한 연구가 있다(安田常雄, 『象徴天皇制と民衆意識: その思想的連関を中心に(報告)』, 『歴史学研究』 621号, 續文堂出版, 1991, 31~41쪽). 2000년대 이후로는 대중 소비 사회를 시야에 넣은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점령 종식 후의 대중 소비 사회에서 천황 표상이 소비된 상황을 고찰한 요시미 슌야(吉見俊哉), 대중 소비 사회에서 미디어 표상으로서의 천황과 황족을 고찰한 모테기 겐노스케(茂木謙之介)의 연구와 가와니시 히데야(河西秀哉)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吉見俊哉, 『メディアとしての天皇制: 占領から高度成長へ』, 網野善彦ほか 編, 『岩波講座 天皇と王権を考える 10 王を巡る視線』, 岩波書店, 2002; 茂木謙之介, 『表象としての皇族: メディアにみる地域社会の皇室像』, 吉川弘文館, 2017; 茂木謙之介, 『表象天皇制論講義: 皇族・地域・メディア』, 白澤社, 2019; 河西秀哉, 『近代天皇制から象徴天皇制へ: 「象徴」への道程』, 吉田書店, 2018). 또한, 헤이세이의 황실 보도가 ‘이야기성’을 띠는 점을 지적한 연구(森暢平, 『メディア天皇制論: 「物語」としての皇室報道』, 吉田裕 外 編, 『平成の天皇制とは何か: 制度と個人のはざままで』, 岩波書店, 2017), 가족 이미지를 키워드로 황실과 미디어의 관계를 논한 연구(森暢平, 『近代皇室の社会史: 側室・育児・恋愛』, 吉川弘文館, 2020), 황실 표상의 소비적 측면이 전전(戰前)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규명한 연구(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吉川弘文館, 2020) 등도 이루어졌다. 특히 모테기는 2022년의 저서에서 2010년대 이후를 모두가 표상의 ‘프로슈머’(prosumer)인 시대로 규정하면서 이 시기의 천황과 황실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을 분석하는데(茂木謙之介, 『SNS天皇論』, 講談社, 2022),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전환기까지 포괄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연구서는 아니지만 마코 공주의 결혼을 다룬 서적도 다수 출판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安積明子, 『眞子内親王の危険な選択: 皇統を揺るがす一大事』, ビジネス社, 2021. 香山リカ, 『なぜ眞子さまのご結婚はバッシングされたのか: 皇室女子と「個人」の意思』, 秀和システム, 2021; 文藝春秋 編, 『秋篠宮家と小室家』(文春新書), 文藝春秋, 2022; 森暢平, 『天皇家の恋愛: 明治天皇から眞子内親王まで』(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2022. 奥野修司, 『マコクライシス: 「眞子さんの乱」で見えた皇室の危機』, 日刊現代, 2022. 이들 선행문과 관련 저서를 참조하면서, 이 글은 기존의 일본 황실과 미디어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다.

5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21쪽.

망을 곧바로 포착했고, 이를 등에 업은 채 한층 더 집요하고 폭력적인 취재와 보도를 이어 나가면서 마코 공주 스캔들의 서사는 점차 ‘메가 스펙터클’(Megaspectacle)⁶이 되어 갔다.

또한, 이 글에서는 종이로 인쇄된 형태가 아닌 웹에 게시된 기사를 분석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가 웹판(web版)을 운영한다. 이 웹 사이트에는 인쇄된 버전의 발매일보다 앞서 기사가 게시되기도 하며, 이렇게 웹에 게시된 기사는 인쇄된 형태보다 훨씬 더 널리 그리고 빠르게 확산된다. 웹판에 게시된 기사는 각 신문과 잡지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식 SNS와 야후 재팬 등의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므로 대중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최초로 마코 공주의 교제 사실과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라는 핵심 특종을 보도한 『주간여성 프라임』(週刊女性PRIME, 『주간여성』(週刊女性)의 웹판)을 중심으로 한 주간지 기사이며, 이들 보도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와 논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황실이 이번 결혼 스캔들 보도에 대해 취한 태도와 미디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국민’ 여론의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간지 및 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 나루히토 천황의 생일 기자 회견과 마코 공주의 결혼 기자 회견, 그리고 유튜브(YouTube)에 게시된 결혼 기자 회견 영상의 댓글과 주간지 보도에 대한 SNS상의 게시글 등을 분석해 가겠다.

2. 환영받지 못한 예비 사위: 주간지가 제기한 고무로의 황실 편입 가능성과 세금 문제

일본의 황실 스캔들 보도에서 잡지가 점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스캔들을 보도한다기보다 창조한다. 이들은 먼저 발단이 될 소

6 Douglas Kellner, *Media Spectacle*, London: Routledge, 2003, pp. 1~2.

재를 찾아 기사화하여 불을 붙인 뒤,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을 통해 스캔들을 이끌어 간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황실 스캔들 보도의 원형이라고까지 불리는 미치코(美智子) 상황후의 과거 스캔들을 들 수 있다. 1993년 6월 27일자 『선데이마이니치』(サンデー毎日)와 『다카라지마30』(宝島30) 1993년 8월호에 황실 내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천황 부부의 행실이 황실의 전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담은 기사가 실렸다. 특히 『다카라지마30』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다루어졌다. 그 내용은 선대와는 달리 천황 부부가 부르주아적·쾌락주의적인 생활과 제멋대로인 요구로 황실의 권위를 저하시킬 위기에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황후가 ‘여제’(女帝), ‘사장 부인’(社長夫人)으로 불릴 만큼 큰 권력을 지니게 된 데 있다는 것이었다.⁷ 주간지 가운데에서도 『주간분춘』(週刊文春)은 9월 16일호부터 10월 28일호까지 무려 7주에 걸쳐 이 주제를 다루면서 황후에 대한 강한 공격을 이어 갔다. 즉, 잡지 미디어가 기삿거리를 찾아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를 향해 일정한 관점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스캔들을 전개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잡지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주도의 황실 스캔들은 이후 마사코 황태자비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도 그 발단과 전개를 주도한 것은 마찬가지로 잡지, 그중에서도 주간지였다. 『여성자신』(女性自身, 웹판은 『웹 여성자신』(WEB女性自身)), 『여성세븐』(女性セブン, 웹 사이트 ‘뉴스 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에 기사 전제), 『주간분춘』(웹판은 『주간분춘 전자판』(週刊文春 電子版)) 그리고 『주간여성』 등이 많은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여성자신』은 고무로 게이의 모친에 관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집중적으로 냈고, 『여성세븐』과 『주간분춘』은 고무로의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삿거리를 찾아 부정적인 글을 실는 등 고무로 공격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주간여성』, 『주간여성 프라임』(이후 『주간여성 프라임』으로 통일)은 마코 공주의 연애와 약혼 내정, 그리고 고무로의 모친과 전 약혼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최초로 보도하는 등

7 篠田博之, 『皇室タブー』, 創出版, 2019, 104~117쪽.

특종을 선점하면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고, 이후에도 방대한 양의 보도를 연일 축적하면서 이 스캔들의 전개를 주도하고 다른 미디어의 논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코 공주의 결혼에 대한 『주간여성 프라임』의 입장은 크게 보면 2017년 12월 11일에 해당 잡지가 최초로 보도한 고무로 게이의 모친 고무로 가요(小室佳代)와 전 약혼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기점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주로 고무로 게이에 대한 논조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처음에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생도 겪어 본 청년이라는 등 호의적이었던 것이 금전 문제 특종 후로는 일관되게 ‘고무로 때리기’로 바뀐다. 그러나 이처럼 표면에 드러나는 논조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간지가 처음부터 마코 공주와 고무로의 연애 및 결혼을 황실에 관한 특정 주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읽히도록 다루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16일에 NHK가 저녁 뉴스에서 마코 공주와 고무로의 약혼 내정 사실을 특종으로 보도하기 훨씬 이전인 2016년 10월 17일, 『주간여성 프라임』은 마코 공주와 한 남성이 요코하마에서 데이트를 하고 전철로 귀가하는 모습을 사진 첨부로 특종 보도한다.⁹ 이어서 이튿날인 18일에도 마코 공주의 연애와 관련한 두 건의 기사¹⁰를 게재한다. 그런데 이들 기사에는 예를 들어 “여성 미야케(女性宮家)를 인정하고 가령 마코 님이 지금 남자 친구와 결혼한 경우, 남편은 ‘황족’이 되는 것인가? 마코 님과 함께 공적 활동을 하는 것인가?”¹¹와 같이, 마코 공주가 교제 상대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

8 「秋篠宮家をご存知か! 眞子さまの婚約者・小室圭さん母「400万円」借金トラブル」, <https://www.jprime.jp/articles/-/1126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이 기사는 『주간여성』에는 2017년 12월 26일호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호는 웹판의 기사 게시일보다 하루 늦은 12월 12일에 발매되었다.

9 「眞子さま、ガッチリ体型のイケメンと横浜デート後に東横線でラブラブなご様子」, <https://www.jprime.jp/articles/-/832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10 「眞子さまに初ロマンス!? 学習院・ICUでのカレの噂と今回のお相手」, <https://www.jprime.jp/articles/-/832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の“交際報道”も皇室ジャーナリストはお相手との「ご成婚」の可能性に懐疑的」, <https://www.jprime.jp/articles/-/83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11 「眞子さまに初ロマンス!? 学習院・ICUでのカレの噂と今回のお相手」, <https://www.jprime.jp/articles/-/832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우려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미야케란, 감소하는 황족의 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황족이 결혼을 한 후에 황적을 이탈하지 않고 그녀를 당주로 삼아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황족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교체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 기사에서는 마코 공주의 연애를 ‘평민’ 남성이 결혼을 통해 황족이 되는 문제와 연관 짓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사는 이듬해에도 이어지는데, 2017년 3월 9일에는 마코 공주를 비롯하여 당시 독신이었던 여성 황족 6인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기사를 두 편¹² 게재한다. 이 가운데 한 기사에서는 황실 저널리스트와 궁내청 담당 기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여성 미야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으로 “일반 남성과 낳은 아이가 아버지 쪽으로는 천황의 선조가 없는 ‘여계’(女系)가 되어, 전통에 반하는 ‘여계 천황’¹³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서 여성 미야케 창설은 없던 일이 되었다고 설명한다.¹⁴ 황위 계승 자격이 있는 남성 황족의 수는 지극히 적은 데다 천황의 ‘생전퇴위’가 구체화되면서 다시금 떠오른 황실의 존속에 대한 위기감을 잘 반영하여, 이 기사는 마코 공주의 연애에 여성 미야케 창설, 남계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황통의 유지라는 민감한 문제를 끌어 넣고 있다. 이렇게 기사 속의 남성, 즉 고무로 게이는 점차 단순히 마코 공주의 연애 상대가 아니라, 미래의 ‘황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변해 간다.

민간인과 결혼하면 어차피 황적을 이탈하게 될 내친왕의 결혼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무로에 대해 유례없이 과도한 공격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처럼 그를 약혼 이전부터 장차 황실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설정한 주간지의 프레임이 있었다. 물론 가계나 학벌로 보아서도 고무로가 황

12 「6人の未婚プリンセスたち「意中の男性」との今後はどう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1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独身の女性皇族は「女性宮家」の創設で微妙なお立場に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0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13 여계 천황이란, 천황 직계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남성이 천황에 즉위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재 천황의 장녀인 아이코 내친왕이 천황이 된다는 가정은 천황 직계인 여성이 천황에 즉위하는 ‘여성 천황’에 해당한다.

14 「独身の女性皇族は「女性宮家」の創設で微妙なお立場に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0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태자의 사위로 적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모친의 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¹⁵ 그러나 고무로와 그의 모친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보도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간지 보도에 의해 이미 고무로는 단순한 공주의 약혼자가 아니라, 만약 황실 전범(皇室典範)이 개정되어 여성 미야케가 창설될 경우 황실로 편입될 수 있는 자로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정 속에서 고무로와 그에 관해 오르내리는 일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 심지어는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여겨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간여성 프라임』은 황위 계승의 자격을 지닌 남성 황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황실이 남계 혈통만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유지하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대적 불안을 잘 활용하여, 마코 공주의 결혼을 공론화하고 검증이 필요한 문제로 만들었다. 또한, 이 같은 프레임은 이후 마코 공주 결혼에 관한 논의를 여성 미야케 설치와 여계 천황에 대한 반대, 황실의 전통 회귀를 촉구하는 의견으로까지 확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익 저널리스트인 미즈마 마사노리는 “여성 미야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여계 천황의 탄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무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마코 공주가 “고무로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고무로 씨는 황족의 일원이 된다. 즉, 고무로 씨가 일반 참가에서 국민에게 손을 흔드는 광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며, 마코 공주가 만약 “여성 천황이 되는 경우, 고무로 씨는 ‘폐하’로 불리면서, 그 아이가 장래 천황이 될 가능성

15 내친왕의 결혼은 상대방 남성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강하혼’(降下婚)이다. 그렇기에 남성 황족들보다 내친왕의 통혼 범위는 더 제한이 커서 상대 남성과의 격차를 가능한 한 줄이려 했고, 그 결과 신분이 황족이나 옛 화족 이하인 남성과 결혼한 내친왕은 마코 공주 이전까지는 미카사노미야 마사코 내친왕(三笠宮容子内親王)과 사야코 내친왕(清子内親王) 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내친왕의 결혼 상대도 각각 다도의 당주 집안 상속자와 후미히토의 가쿠슈인대학 동기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고무로는 진정으로 일본의 상류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의 자살과 어머니의 금전 문제 등 가족의 사건·사고가 얽혀 과거 내친왕의 결혼 상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리 료헤이(森暢平)는 황실 결혼의 역사가 ‘동등성의 원칙’을 완화해 왔다면, 이 원칙을 궁극적으로 해제한 것이 마코 공주와 고무로의 결혼이라고 말한다. 森暢平, 『天皇家の恋愛: 明治天皇から眞子内親王まで』(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2022, 244~245쪽.

도 제로는 아닌 것”이라고 언급한다.¹⁶

또 호사카 마사야스는 여러 편의 글에서, 마코 공주의 결혼 소동은 ‘자유 연애’와 ‘열린 황실’을 표방한 순간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는 주장,¹⁷ 황실과 황족은 어디까지나 ‘성스러운 존재’로 남아야만 하는데 마코 공주의 결혼은 황실에 ‘세속(고무로 모자)’이 침범하여 ‘세속화’하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 전전(戰前)과 같이 황족의 불상사를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¹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난의 화살을 아키시노노미야 집안으로 돌리면서, 그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파격적인 행보가 문제의 씨앗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대로 아키시노노미야 부부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맡겨 두어서는 장래에 천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히사히토 친왕(悠仁親王)도 마코 공주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황실 내부에 존재하며, 역시 예전처럼 가쿠슈인 교육을 부활시켜 ‘체대로 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한편으로 헤이세이 황실의 여성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많은 미디어에서 이전 여성 황족들의 결혼이 마코 공주의 결혼과 비교하여 얼마나 기품 있었는가를 강조하였고, 미치코 상황비가 구현한 이상적인 황실 여성의 태도와 덕목에 관한 서적도 출간되었다.²⁰

이처럼 미래의 ‘황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서 고무로를 설정하는 일과 더불어 『주간여성 프라임』에서 주력한 것은 이 결혼을 황실에 들어가는 세금 문제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일이었다. 원래 일본 황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전 후 연합국군의 점령 아래 경제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일본국헌법이 정하는 상징천황제로의 전환과 함

16 水間政憲, 『ひと目でわかる皇室の危機: 天皇家を救う秘中の秘』, ビジネス社, 2019, 141쪽.

17 保阪正康, 「象徴天皇制の「聖」と「俗」」, 『文芸春秋』 99卷 12号, 文芸春秋, 2021, 104~111쪽.

18 保阪正康, 「新・皇室論(上) 皇室は反論権を持つべきなのか: 眞子さん結婚問題, 秋篠宮会見の歴史的深層」, 『サンデー毎日』 100卷 63号, 毎日新聞出版, 2021, 20~21쪽.

19 「秋篠宮家「秘録」: この三年間に何が起きていたか」, 『文芸春秋』 99卷 12号, 文芸春秋, 2021, 92~103쪽.

20 예를 들어 矢部万紀子, 『美智子さまという奇跡』(幻冬舎新書), 幻冬舎, 2019, 香山リカ, 『皇室女子: 鏡としてのロイヤル・ファミリー』, 秀和システム, 2019 등이 있다.

계, 이전처럼 황실에 막대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특정한 이들과 경제적으로 결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황실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²¹ 그리고 황실경제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황실 비용으로는 내정비(内廷費), 궁정비(宮廷費) 그리고 황족비(皇族費)가 있는데, 황족비는 황족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황족 신분에서 이탈할 때 일시금으로서 지출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²² 마코 공주가 고무로와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일시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황실 또는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라면 어디든, 이들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일본에서는 최근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2년 반에 걸쳐 이루어진 아키시노노미야 저택의 수리에 무려 40억 엔 가량의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²³ 이처럼 황족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도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이 가운데 일부가 마코 공주를 통해 고무로 혹은 그의 모친을 위해 쓰인다면 초대형 논란을 불러일으키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간여성 프라임』은 2018년 2월 13일 자 기사에서,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마코 공주나 황실 측에서 돈을 마련한다면 국비를 쓰는 셈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²⁴ 4월 18일에는 고무로 모친이 아키시노노미야 저택을 방문하여 빚 문제를 “황실에서 도와줄 수 없는지를 타진”했다

21 일본국헌법 제8조의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와 제88조의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가 이에 해당한다. 「昭和二十一年憲法 日本国憲法」, e-GOV 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최종 검색일: 2023. 11. 30.). 한국어 번역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일본국헌법 완역본 파일 4쪽과 27쪽을 참조하였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2403&AST_SEQ=2601&(최종 검색일: 2023. 11. 30.).

22 「皇室の經濟」,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about/seido/seido08.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23 「佳子さま 自室が狭すぎて荷物を収納できない…“30億円改修”秋篠宮邸で発覚したまさかの欠陥」, <https://jsin.jp/koushitsu/2207734/>(최종 검색일: 2023. 11. 30.).

24 「小室家が20年間にわたり引きづっている親戚間での金銭的なめ事」, <https://www.jprime.jp/articles/-/1166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고 들었으며 이는 자신의 빚을 “결혼 후에 지급된 일시금으로 갚을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는 궁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를 실었고,²⁵ 8월 8일에는 아직 마코 공주의 약혼 내정자에 불과한 고무로의 경호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²⁶ 사실 이 기사들은 확실한 증거는 없이 황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황실 전문가’나 익명의 ‘황실 관계자’의 발언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 어차피 그 목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황실의 돈, 즉 세금이 고무로 모자를 위해 쓰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주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마코 공주가 결혼하여 황실을 떠나면서 받게 될 일시금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다. 마코 공주 이전에 있었던 2005년의 사야코 내친왕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주간여성 프라임』은 이때 지급된 1억 5,250만 엔이 황실경제법에서 규정한 일시금의 최고액으로, 마코 공주에게도 이와 같은 금액 또는 최소한 약 1억 4,000만 엔이 지급될 것인데 결국 이 돈은 “고무로 집안에 건너가게” 되는 셈이라고 썼다.²⁷ 그리고 일시금이 결국 고무로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궁내청이 납채 의식(納采の儀, 남성의 집안에서 예물을 보내는 의식) 연기를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2018년 6월 5일부터 시작하여 마코 공주가 결혼을 성사시킬 유일한 방법은 일시금 수령의 포기밖에 없다는 요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었다. 예를 들어, “만약 일시금을 사퇴한다면 고무로 씨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는 점을 행동으로 국민에게 보여 주게 된다”²⁸라거나, “일시금도 세금이므로 사퇴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²⁹이라는 등이 그 내용이

25 「眞子さま、結婚への固い「ご意思」と無言貫く小室親子の見立て」, <https://www.jprime.jp/articles/-/1214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26 「眞子さまの恋人・小室圭さん、米国留學後もかかる2億5000万円の税金」, <https://www.jprime.jp/articles/-/130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27 「眞子さま、秋篠宮ご夫妻も介入できない「結婚一時金」は“減額されても”1億4千万円!」, <https://www.jprime.jp/articles/-/18974?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28 「眞子さま、ご成婚へ最後の手段!? 「一時金」辞退を」, <https://www.jprime.jp/articles/-/12524?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29 「小室圭さん、年末帰国せず! 眞子さまに残された「恋愛結婚」への最終手段」, <https://www.jprime.jp/articles/-/1419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었다. 이 같은 『주간여성 프라임』의 주장은 곧 다른 주간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물결처럼 번져 갔다.³⁰ 이 결혼 스캔들을 해석하고 의견을 재생산하는 데 『주간여성 프라임』이라는 미디어가 앞장 서서 제시한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미디어의 킬러 콘텐츠 사냥과 ‘국민’의 실상

마코 공주 결혼 스캔들에 관한 『주간여성 프라임』을 비롯한 주간지의 비난은 주로 고무로 모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무로의 황실 편입 가능성과 황족을 위한 세금이 고무로 가족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점차 공주 자신과 아키시노노미야가(家)에 대한 비판의 뉘앙스를 띤 보도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많은 주간지의 예상과는 달리 2021년에 들어서서 마코 공주의 결혼이 현실화하기 시작하면서 마코 공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주간여성 프라임』의 기사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고무로 씨 6월 귀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마코 님이 ‘결혼’ 강행인가”(2021년 5월 27일), “마코 님, 고무로 게이 씨와 계획하는 ‘국민의 시선’을 피하는 배신의 ‘눈 가린 결혼’”(2021년 6월 23일), “마코 님 환한 웃음! 고무로 게이 씨의 뉴욕 취직은 계획대로 아키시노노미야 님이 허락한 올 가을 ‘배신 결혼’”(2021년 8월 14일), “마코 님과 고무로 게이 씨의 ‘황실 전통을 파괴’한 결혼이 가코 님에게 계승될 위협성”(2021년 9월 2일), “‘마코 님은 일본을 버렸다’ 천황 폐하의 기분

30 대표적인 예로, ‘뉴스 포스트세븐’에 실린 『여성세븐』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일시금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월급쟁이가 평생 벌 연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지만, 용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익명의 황실 기자와 궁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세금이 원천인 이 일시금이 고무로의 유학 자금이나 고무로 모친의 빚 청산에 쓰인다면 “국민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코 공주와 고무로가 일시금을 사퇴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한다면 “결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잠잠해질 것”이며 “국민의 불신감”을 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小室圭さん 眞子さまの一時金1.5億円減額・辞退の可能性」,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81018_784159.html?DETAIL(최종 검색일 2023. 11. 30.).

과 코로나 재난을 고려하지 않는 프린세스의 선택”(2021년 9월 10일) 등, ‘배신’, ‘파괴’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코 공주의 결혼은 국가와 국민, 황실의 전통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주간지 미디어 주도의 마코 공주 스캔들은 전반적으로 연예인 스캔들의 생산 및 소비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일찍이 마쓰시타 게이이치가 천황과 황족을 ‘예배’(拜む)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대중의 ‘태도’가 이행³¹되었다고 설명한 것처럼, 현대 일본의 대중에게 천황가는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시각적 소비의 대상에 가깝다. 이렇게 된 데에는 패전 후 황실 이미지 공급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미디어 산업으로 넘어간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점령기의 천황제 개혁을 거치면서 기존에 천황가와 대중을 연결해 왔던 모든 국가적인 회로의 작용이 사라지고 미디어 산업이 천황가의 이벤트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회로로 성립한다.³² 이렇게 황실 이미지 생산과 유통에서 권력을 쥐게 된 미디어 산업은 황실과 대중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즉 세속적인 황실 이미지를 넘치도록 만들어 냈다.³³ 이 같은 세속적 이미지는 대중이 천황과 황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천황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의 지지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또는 ‘애국심 환기의 상징’,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중핵’으로서의 천황과 황실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디어 산업으로서는 이 같은 특별한 사회적 의의를 지니지 않는 대상으로서 황실을 제시해야만 더욱 대중을 쉽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상품화가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의한 황실의 표현도 일반적인 연예계의 ‘스타’들과 동질화되는 것이다.³⁴

31 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5쪽.

32 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191~192쪽.

3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 南博, 「天皇制の心理的地盤」, 『思想』 336号, 岩波書店, 1952, 554~563쪽.

34 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196쪽.

그러나 스타에 대한 대중적인 찬미는 언제나 무자비한 비판으로 쉽게 돌변할 가능성을 지닌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른바 ‘공인’이라 분류되는 이들이 대중의 기대와 도덕적 요구를 저버릴 때, 공격(bashing), 캔슬 문화(cancel culture)³⁵ 등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가혹한 비난과 공격, 단죄가 이루어진다.³⁶ 특히 일본에서는 연예인에게도 규정된 형태의 양심이 요구된다. 그들은 거대한 상징적 영향력과 문화적 권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도덕적’이라 지정된 특정한 의무를 지닌 공공재처럼 간주된다.³⁷ 또한 일본 미디어에서 흔히 쓰이는 ‘국민적 아이돌’이란 용어가 잘 보여 주듯, 이 공공성은 대부분 내셔널한 성격을 띠는 점이 중요하다. ‘민간’의 연예인에게도 적용되는 이러한 인식이 그야말로 ‘공적 존재’인 황실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황실이 더 이상 신성불가침이 아닌 ‘스타 패밀리’로 소비되는 이상, 그들을 향한 대중의 공격에 망설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시 이 스캔들에서 미디어의 집중포화를 받은 것은 압도적으로 고무로 모자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전 문제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다양한 흠집 내기에 더하여 이 결혼을 황실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고무로는 돈 또는 황실 편입을 목적으로 마코 공주와 결혼하려는 뻔뻔하고 무능력한 남자로 그려졌으며,³⁸ 고무로의 모친은 결혼 연기의 원인이 된 400만 엔의 빚 외에도 과거에 또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등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온 탐욕적인 인

35 ‘캔슬 문화’란, 유명한 개인 또는 조직체가 대중이 옳다고 믿는 가치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취소(cancel)하고 배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3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서를 참조. Perry R. Hinton, *Stereotypes, Cognition and Culture*, Hove: Psychology Press, 2000.

37 Igor Prusa, *Scandal in Japan*, p. 31.

38 대표적인 사례로 『주간여성 프라임』의 기사 제목을 몇 가지 살펴보면, “고무로 게이 씨 귀국, 마코 님과의 ‘혼란 속 결혼’으로 무엇보다 손에 넣고 싶었던 ‘황실 브랜드’”(2021년 9월 24일), “고무로 게이 씨가 손에 넣은 ‘역(逆) 신데렐라’ 이야기, ‘세금을 쓰지 말라’ 국민의 비명은 닿지 않았다”(2021년 9월 28일), “고무로 게이 씨 ‘강철 멘탈’로 마코 님과 결혼에, 미국에 건너가기까지 해야 할 ‘To Do List’”(2021년 10월 20일) 등이 있다.

물로 그려졌다.³⁹ 그 외에 고무로 부친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내용에 대해 취재하는 등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있었다.⁴⁰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황실이 반대하고 있으며 결혼은 성사될 수 없다는 논조의 보도는 고무로의 미국 유학 계획이 알려지면서 증가했다. 2018년 7월 5일자 『주간분순 전자판』에는 고무로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유가 황실에서 그를 해외로 보내 결혼을 “자연 소멸”시키기 위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⁴¹ 그리고 2018년 8월 7일에 미국으로 출국한 고무로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인 8일 아침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조간 1면에 “납채 의식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다” 아키시노노미야 부부 고무로 씨에게 “라는 제목으로 아키시노노미야 부부가 고무로 모자에게 납채 의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곧 다른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도 뒤따라서 일제히 이 ‘통보’에 관한 보도를 이어 갔다. 심지어 납채 의식이 연기된 기한인 2020년에 들어서자, 결혼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기사⁴²가 게재되기도 했다.

결혼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이라도 하는 듯한 내용 일색인 미디어 보도를 두고, 이른바 ‘황실 터부’(皇室タブー)⁴³로 인한 미디어의 자주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황실 터부를 의식한 미디어가 일종의 안전 장치로서 고무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황실 보수파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결혼에 관해 부정적인 보도와 고무로 비난 일색이 되었다는 것

39 예를 들어, 『주간여성 프라이프』의 “마코 님 망연자실! 고무로 게이 씨 어머니가 ‘두 번째 남자’와 2천만 엔 ‘사기’ 의혹”(2021년 6월 2일)과 같은 기사가 있다.

40 예를 들어, 『주간분순 전자판』은 “고무로 모자가 본 이수라 ‘아버지 자살’의 진상”(2019년 2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고무로 부친의 자살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41 「小室圭さん裏切りのマンハッタン留学 秋篠宮ご夫妻も愕然!」, <https://bunshun.jp/denshiban/articles/b681>(최종 검색일: 2023. 11. 30.).

42 「眞子さま、小室圭さん結婚問題は2月「無期延期」発表が濃厚!「事実上破談」か」, <https://www.jprime.jp/articles/-/1707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43 일본 천황과 황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금기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의 ‘불경죄’가 폐지되면서 전후에는 비교적 미디어에서 자유롭게 천황가를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황실에 비판적인 보도나 창작물에 대한 우익 단체의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미디어의 황실 보도에는 일종의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황실 터부와 관련한 사건에 관해서는 앞의 篠田博之, 『皇室タブー』, 2019를 참조.

이다.⁴⁴ 게다가 보수와 황족 가운데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펴뜨리기 위해 미디어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이 있어, 주간지나 신문 등이 이 같은 황족 일부와 궁내청 관계자에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⁴⁵

물론 이 스캔들 보도가 마코 공주나 아키시노노미야 부부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도 하는 만큼, 미디어가 황실 터부를 의식하여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황실의 품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한다는 방어선을 두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을 지닌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코 공주 결혼에 관한 과열된 취재 양상에 대해 “금기 없이 국민적 관심사를 파고 드는 것은 우리 주간지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⁴⁶이라고 『주간신초』(週刊新潮) 편집장이 발언한 것처럼, 대개 이러한 보도는 아무리 비도덕적인 취재 행위라 할지라도 ‘진실’, ‘국민의 관심사’ 또는 ‘알 권리’를 추구할 뿐이라는 서사를 조직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언론으로서 현상을 해석하고 은폐된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행한다는 포장을 두름으로써 스캔들을 생산하는 자신에게도, 이를 소비하는 독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간지나 신문 기사의 정보원이 황실 내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궁내청에서 이미 ‘마코 내친왕 전하와 관련한 최근의 주간지 보도에 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궁내청은 주간지 보도를 ‘잡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부 주간지에서 마치 실제 황실 내부의 의견인 것처럼 ‘시종직(侍從職) 관계자’, ‘궁내청 간부’, ‘궁내청 관계자’ 등의 말을 기사에 인용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⁴⁷

44 篠田博之, 「眞子さまの結婚宣言「お気持ち」文書の大波紋とパッシング報道の背景にある皇室タブー」,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0081509b24c0b95ef193038b0cf7771d01e17665> (최종 검색일: 2023. 11. 30.).

45 篠田博之, 「眞子さまの結婚宣言「お気持ち」文書の大波紋とパッシング報道の背景にある皇室タブー」,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0081509b24c0b95ef193038b0cf7771d01e17665> (최종 검색일: 2023. 11. 30.).

46 赤田康和·杉浦達朗·貞国聖子, 「結婚報道, 週刊誌が小室家追う理由「公人性高い」「国民の関心事」」,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m/articles/ASPBJ5CM9PB7UTIL03J.html> (최종 검색일: 2023. 11. 30.).

47 「眞子内親王殿下に関する最近の週刊誌報道について」,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kuna->

또한 주간지의 특종 예고가 실제 황실의 움직임과 엇갈리는 일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에 들어서자 마코 공주와 고무로의 결혼이 재차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했는데, 특히 『주간여성 프라임』에서는 11월 13일자 기사에서 ‘궁내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미히토 황태자와 마코 공주 사이에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결혼이 연기될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17일에 자세히 다루겠다고 예고하였다.⁴⁸ 그러나 같은 날에 마코 공주는 궁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서를 통해 “결혼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며 앞으로도 “가족들과도 상의하면서” 결혼을 진행시킬 것이고, 해당 문서의 공표에 관해서도 이미 천황 부부와 상황 부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⁴⁹ 결혼에 관한 사실 관계가 틀렸음은 물론, ‘궁내청 관계자’를 취재했다며 특종을 예고한 주간지가 정작 기사가 나가는 당일 궁내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문서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같은 달 30일에는 후미히토 황태자가 자신의 생일 기자 회견에서 직접 마코 공주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촌극에 가까운 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여성 프라임』은 어떠한 정정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결혼에 관해 부정적인 예측이 담긴 기사를 다수 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논조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미디어가 뉴스 보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웹상에서의 ‘클릭 수’로 결정되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많은 신문과 잡지가 웹판을 운영하며, 웹판의 기사는 공식 SNS와 각종 뉴스 플랫폼 등에도 전재된다. 그리고 SNS와 뉴스

icho/koho/taio/taio-h30-0525.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48 「眞子さま「強行除籍」の可能性も! 秋篠宮さま, 会見で「結婚と婚約は別」とご発言」, <https://www.jprime.jp/articles/-/1944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49 「眞子内親王殿下が記されたご結婚についてのお二人のお気持ち」,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activity/activity/03/gokekkan/okimoti.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플랫폼 모두 기사가 실린 페이지의 방문 횟수, 즉 PV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고 광고의 단가가 결정되므로,⁵⁰ 가능한 한 많은 독자들이 기사를 클릭하도록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스타일로 기사가 작성된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 각사에서는 이 같은 잡지나 신문 보도의 내용을 ‘정보 프로그램’(情報番組)이나 ‘와이드 쇼’(ワイドショー) 등에서 흥밋거리처럼 다루면서 시청률을 확보한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볼 때, 마코 공주의 결혼과 고무로 모자는 그야말로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주간여성 프라임』은 미디어 종사자들의 입을 빌려, 제목에 고무로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 기사의 주목도가 달라지며 특히 인터넷에 게시될 때는 그 차이가 더 분명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내용과는 무관하게 고무로의 이름을 넣은 낚시성 제목을 붙인 기사의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⁵¹ 또 다른 기사에서는 잡지나 신문뿐 아니라 와이드 쇼에서도 고무로의 이야기가 나와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미디어 업계에서는 둘의 결혼 문제가 더 길게 늘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썼다.⁵² 바꾸어 말하면, 주간지나 신문으로서는 실제 기사 내용이 고무로와 관련이 없거나 그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더라도 제목에 ‘고무로’라는 단어를 넣어 클릭 수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마코 공주와 고무로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고 문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미디어는 더 이윤을 얻게 된다니, 앞서 『주간여성 프라임』이 결혼 연기에 관해 치명적인 오보를 냈음에도 태연하게 유사한 논조의 보도를 이어 간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미디어가 이 결혼 스캔들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간지를 비롯한 많은 미디어 보도가 결혼에 대한 의문, 불신, 배신감, 분노 등을 표현할 때 그 주어로 ‘국민’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

50 자세한 내용은 李美淑ほか著, 『いいね!ボタンを押す前に: ジェンダーから見るネット空間とメディア』, 電子書籍版, 亜紀書房, 2023, 제1장을 참조.

51 「小室圭さんと母・佳代さんの高いネームバリュー, 国民の関心増で止まらぬ“コンテンツ化”」, <https://www.jprime.jp/articles/-/21315?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52 「小室圭さんが国民感情を逆なでする背景に, “眞子さまのアイドル化”」, <https://www.jprime.jp/articles/-/1966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들은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황실이 이를 저버릴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비난에 정당성 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등장시킨다. 그러나 수많은 미디어 보도에서 마코 공주와 고무로 모자를 향해 다양한 감정과 요구를 표현하는 주체로 등장한 ‘국민’에 실체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납득’이라는 단어로 황족의 결혼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국민’이 현재 일본에 과연 존재하는가?

먼저 많은 미디어 보도에서 ‘국민’ 의견의 근거로 제시하는 여론을 검토해 보자. 예를 들어, 『부인공론』(婦人公論)이 마코 공주의 결혼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47인, 반대는 167인,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의견은 36인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⁵³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사(読売新聞社)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결혼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3%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으며 18세부터 39세에서는 59%에 달했다.⁵⁴ 『부인공론』은 2021년 1월 4일에서 14일까지, 15세부터 91세까지의 여성 250인을 대상으로 잡지와 웹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이며, 요미우리신문사는 2021년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전국의 1,124인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것이다. 『부인공론』은 “마코 님과 고무로 게이 씨의 결혼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찬성”과 “반대” 또는 “어느 쪽도 아니다”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했고, 요미우리신문사는 “아키시노노미야가의 장녀 마코 님과 고무로 게이 씨의 결혼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는 문항에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답할 수 없다”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여론 조사의 시기, 대상, 방식, 문항이 전부 다르다.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인 것이다. 만약 같은 문항으로 다른 표본 집단을 조사하거나, 같은 표본

53 「眞子さまのご結婚、私はこう思う：緊急アンケート 読者250人の本音」, 『婦人公論』 106卷 4号, 中央公論新社, 2021, 104~105쪽.

54 「眞子さま結婚、よかったと「思う」53%…読売調査」, 『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11005-OYT1T50242/>(최종 검색일: 2023. 11. 30.).

집단을 다른 문항과 선택지로 조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각 여론 조사의 응답자가 과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표본의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최근의 주간지 기사에 대한 SNS상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주간지 『여성자신』은 2023년 11월 17일에 열린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직할 기관 ‘안정적인 황위 계승 확보에 관한 간담회’의 첫 회답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황족의 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황족 여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것과 황족 혈통에 속하는 남계 남성을 양자 입양을 통해 황족이 되도록 하는 두 개의 안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궁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양자 입양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양자로 들어온 이들이 여성 황족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아이코 내친왕의 결혼 상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⁵⁵ 결국 두 가지 안의 어느 쪽이든, 황족 여성의 결혼 상대가 될 남성은 그 혈통과 신분이 황실의 일원으로서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마코 공주의 결혼 상대로서 고무로가 그토록 미움을 받았던 이유에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있었다. 만약 황실 전범이 개정된다 해도 고무로 같은 남자가 황실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제목부터 “아이코 님의 ‘결혼의 자유’도 빼앗을지 모를 기사다 정권의 ‘보수적인 황위 계승’ 논의”이고, 아이코 내친왕이 자신의 결혼 상대는 스스로 선택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며 부모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궁내청 관계자의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즉, 간담회가 주장하는 황위 계승을 위한 방안은 여성 황족이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SNS상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일본의 주류 SNS

55 「愛子さまの“結婚の自由”も奪いかねない岸田政権の「保守的な皇位継承」議論」, <https://jisin.jp/koushitsu/2265238/>(최종 검색일: 2023. 11. 30.).

라 할 수 있는 X(옛 명칭 트위터)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결혼 후에도 황실 안에 머무르게 되면 더욱 결혼 상대 따위는 찾을 수 없다. 아이코 님은 자신이 바라는 상대와 결혼하시면 되는 것뿐. 그 자유는 마코 씨가 보여 주셨어요”(みちのくの安達, @tomitaramen, 2023년 12월 2일 7시 30분 게시물), “지독한 비방 증상으로 마코 님의 결혼의 자유에 간섭해 온 자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상한 대책을 끌고 와서 ‘아이코 님의 결혼의 자유가 빼앗긴다’라느니, 무슨 낱짜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성자신』인가 하는 쓰레기 잡지는 스스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ハッピーラス星人, @HappyHamLife1, 2023년 12월 2일 8시 30분 게시물), “마코 씨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싫어하는 결혼? 웃기지 말라고 해”(日々彼是, @M9TNpkN6F3zog9u, 2023년 12월 2일 15시 16분 게시물)라는 글들이 눈에 띈다(밑줄 인용자).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을 주도해 온 주간지를 비롯한 전통적 미디어에 등장한 ‘국민’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여론’이라고 이야기된 것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코 공주는 결혼 직후 기자 회견에서 미디어 보도를 가리켜 ‘비방 증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미디어와 ‘국민’에 대한 적개심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지만, 위의 반응 가운데에는 똑같은 단어로 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이 확인된다. 또한 황실의 ‘정통성’이나 ‘세금’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마코 공주가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자유를 보여 줬기에 남은 여성 황족도 그 자유를 실천하면 된다는 의견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용한 “마코 씨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싫어하는 결혼? 웃기지 말라고 해”라는 게시글은 마코 공주의 결혼이 공격의 대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즉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한 결혼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 납득하지 않은 ‘국민’이 과연 모든 일본 국민을 포괄하는가라는 의문과 이에 대한 조소를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비교적 줄어든 현재, 결혼과 가족에 관해 모두가 동의하는 ‘정답’이 있을 리 없다. 마코 공주의 결혼에 반대한 균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국민’이란, 미디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늘어놓은 ‘비방 증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창조한

허상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천황가에 관한 저서를 다수 집필해 온 모리 료헤이는 과거 황실은 근대 가족의 이상이었고 황족의 연애와 결혼은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⁵⁶ 미디어가 야기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깨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마코 공주와 이를 용인한 레이와 황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민’이 아닌 ‘통합’ 되지 않는 개인들이 공존하는 레이와 시대 일본사회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4. 레이와 황실의 공(公)과 사(私), 그리고 미디어 비판

후미히토 황태자는 2018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자신의 생일 기자회견에서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납득하고 기뻐해 주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른바 혼약에 해당하는 납채 의식이라는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⁵⁷라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마코 공주는 납채 의식을 비롯한 모든 의식과 행사를 생략하고 일시금 수령도 사퇴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혼약 ‘의식’일 뿐이고 마코 공주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납득’ 없이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후미히토의 발언 자체도 ‘혼약에 해당하는 납채 의식’을 행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지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2년 뒤인 2020년의 55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결혼과 혼약은 다르다.”라고 언급하였고, 딸의 결혼을 허락하는 이유를 “헌법에도 결혼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모로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

56 森暢平, 『天皇家の恋愛』, 249~252쪽.

57 「「多くの人が納得し喜んでくれている状況ではない」秋篠宮さま会見全文」, 『毎日新聞』, <https://mainichi.jp/articles/20201129/k00/00m/040/334000c>(최종 검색일: 2023. 11. 30.).

선을 그은 것이다. 그리고 마코 공주는 결혼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디어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난도질당해 온 자신의 결혼을 보란 듯이 부부 두 사람의 사적인 영역으로 되돌린다.

고무로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마코 공주는 먼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를 짧게 진한 뒤 이 회견을 마련한 이유를 “지금까지의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낀 점과 결혼에 대한 생각 등”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강조 인용자).⁶¹

저에게 게이 씨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은,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지키면서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중략) 일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약혼에 관한 보도가 나간 이후 게이 씨가 독단적으로 움직인 일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 씨 어머니의 전 약혼자에게 한 대응은 제가 부탁한 방향으로 진행시켰습니다. 게이 씨의 유학에 관해서는, 게이 씨가 장래에 계획했던 유학을 앞당겨서 해외에 거점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밑줄 인용자)

위의 발언에서 마코 공주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이며,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부탁으로 결혼 당사자인 ‘우리’가 정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고무로 게이는 “저는 마코 씨를 사랑합니다”라는 난데없는 고백으로 말문을 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혼 당사자들의 여과 없는 감정 표현은 청중들에게 당황스러운 것이었으며, 과거 황족의 결혼 회견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어진 “일방적인 억측”,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확

61 『【全文】小室眞子さん「圭さんはかけがえない存在」 圭さん「愛しております」結婚会見』, 『東京新聞』, <https://www.tokyo-np.co.jp/article/138990/2>(최종 검색일: 2023. 11. 30.). 이 글에서 인용한 해당 기자회견의 내용은 모두 같은 기사가 출처임을 밝혀 둔다. 이하 출처 표기는 생략.

산되는 상황에 “공포심”을 느꼈으며 “괴롭고 슬픈 마음”이었다는 마코 공주의 발언, “잘못된 정보”, “비방과 중상”으로 마코 공주와 자신의 어머니가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고무로의 발언에는 미디어 보도를 향한 노골적인 불쾌함과 분노가 명확히 표출된다.

미디어를 통해 전개되는 스캔들 서사에서, 당사자가 대중의 앞에 직접 서는 기자회견은 그들이 겪는 굴욕과 고난, 고통을 대중이 보고 심판하도록 마련된 일종의 ‘가학적’인 이벤트이다.⁶² 따라서 대부분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 속죄가 기대되며, 그 태도의 진정성이 대중의 잣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험난한 스캔들 서사에서 내려설 수 있다. 이 같은 기자회견에서 스캔들 당사자는 그 사죄의 신체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카메라의 정면에 세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극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스캔들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굴욕적인 사죄 행위가 추후 사회로 복귀하고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마코 공주는 ‘품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황족인 만큼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기 원하는 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자회견이 일련의 ‘소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자회견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를 들어, 회견 전체에서 두 사람의 발언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말은 단 한 번 쓰였고, ‘국민’ 또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른바 ‘국민’을 향한 사죄가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매우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해당 기자회견의 동영상에는 “몇 번을 봐도 불쾌해지는 회견”, “성义와 책임감이 결여된 서른 살 부부!” 등의 댓글이 달려 있

62 Nick Smith, *I Was Wrong: The Meanings of Apolog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104.

다. “뭔가 기분 나쁘는데 저만 그런가요?”라는 댓글에는 “저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프다면서 또 비난 받을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분 나쁨.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동조의 답글을 발견할 수 있다.⁶³ 또 마코 공주는 기자 회견 내내 무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쳐다보고 때로는 웃음을 띠는 등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고, 고무로는 댓글에서 ‘의기양양한 표정’(ドヤ顔)⁶⁴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기자 회견에서의 사죄가 향후 사회적 복귀를 위해 대중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라면, 아마도 복귀가 아니라 탈출을 원했을 두 사람에게 사죄를 연기할 이유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 대신 두 사람은 결혼을 관철하기 위해 지나온 과정에서 자신들이 느낀 감정을 표출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헤이세이류 황실의 자세에 익숙한 대중의 앞에 선 마코 공주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황실의 보도 자료나 주간지에 실린 사진 및 영상 등 미디어를 통해 대중이 소비해 온 프린세스 마코의 표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일치하지 않았으며, 기자 회견 내내 그녀는 기대되는 서사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게다가 보통 기자 회견에서 실질적 메인 이벤트라 할 질의응답은 기자단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문서로 갈음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회답 문서’의 서두에 명시되어 있다. 제출된 질문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는 질문”이 포함되어 “충격”을 받았으며, 회견장에서 직접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면 “공포심”이 일고 “마음의 상처”가 더욱 커질 것 같아서 문서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63 『【ノークット】小室圭さん、眞子さんが結婚会見 “一方的な憶測”と厳しい言葉』, <https://youtu.be/png-mVWzMrSU?feature=shared>(최종 검색일: 2023. 11. 30.).

64 고무로 게이에 대해 “3차원 엘렌 예거”(3次元エレン・イエガー)라고 칭한 댓글도 볼 수 있다. 엘렌 예거는 만화 『진격의 거인』(進撃の巨人)의 주인공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진정한 ‘괴물’이라 불린다. 이는 전 국민의 비난과 조롱, 온갖 언론에서 연일 다루어지는 자신과 가족의 처부를 드러내는 보도에도 개의치 않는 듯한 고무로 게이의 행동과 결국에는 마코 공주와의 결혼에 성공한 것을 두고 빗대는 표현인데, 해당 만화의 독자층을 중심으로 고무로 게이가 단순한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 서브컬처적인 소비와 유희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전통에 따른 결혼 ‘의식’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공적’인 결혼이 아니라면, 그녀의 결혼에 사회적인 납득이 전제 조건이 될 이유는 없다.

또한 이 기자 회견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미디어를 향한 비판이었다. 마코 공주는 기자 회견 서두에서 두 번이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는 질문을 받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하였고, 이 문장은 회답 문서에도 포함되었다. 해당 문장과 “비방 중상”,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미디어를 향한 비난은 회답 문서 전체에서 9회나 등장하고,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었다. 앞서 소개한 졸업 기념 기자회견의 질문에 대한 가코 공주의 답변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 그녀는 미디어 보도에 대해 정보의 신뢰성과 발신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하면서 언니의 결혼을 다루는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의 태도를 내비쳤다.⁶⁶

이 같은 의견은 미디어에서 비난하듯이 황실의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아키시노노미야 집안만의 생각일까? 그러나 나루히토 천황도 앞서 다룬 62세 생일 기자 회견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주간지 보도와 인터넷상의 글”에 대해서 “일반론이지만, 타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입장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처한 상황에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입장에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⁶⁷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으나, 이것이 마코 공주의 결혼을 난도질해 온 미디어를 향한 비판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궁내청이 주간지 미디어를 ‘잡음’이라고 한 발언부터 나루히토 천황의 기자 회견 발언까지, 헤이세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전환기에 일본 황실은 이례적으로 미디어 보도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66 「佳子内親王殿下の国際基督教大学ご卒業に際しての文書回答(平成31年)」,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page/kaiken/show/27>(최종 검색일: 2023. 11. 30.).

67 「「脱炭素社会の実現を」 天皇陛下, 誕生日会見全文」,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QUE224ZH0S2A220C2000000/>(최종 검색일: 2023. 11. 30.).

5. 미디어와 황실의 관계가 나아갈 행로

마코 공주의 결혼 스캔들은 일본 황실이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미디어와 황실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며 지속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마코 공주의 결혼으로 인해 현재 미혼인 황족들의 결혼 및 황적 이탈은 한층 더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자연인으로서 보낸 일상의 순간이 사진 등을 통해 유출될 때마다 젊은 황족들은 이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마주해야 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위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언제나 부정적인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은 그들의 일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식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 기록된 일상의 유통이 더욱 가중될 레이와 시대에, 과연 이처럼 ‘상징’으로서의 억압된 일생을 견딜 수 있는 황족이 몇이나 될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마코 공주의 결혼 소동에서 일본사회가 목격한 것은 상징천황제를 잃어진 ‘인간’의 존재였을지 모른다. 마코 공주가 떠난 레이와 황실의 ‘인간’들은 과연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일본의 미디어와 이전과는 달라진 관계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2023년 4월 1일 『요미우리신문 온라인』(読売新聞オンライン)에는 궁내청에 홍보실이 신설된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홍보실 설치의 목적은 “황실의 정보 발신 강화”인데, “국민이 황실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발신 방법을 검토”하고 “고무로 마코 씨의 결혼을 둘러싸고 주간지와 SNS에서 비방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는 황실의 활동과 인품의 발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밑줄 인용자)⁶⁸ 미디어의 보도 행위에 비방 증상이 있었다고 못박는 점은 마코 공주 스캔들에서 황실이 보여 온 태도와 일치하지만, 황실의 활동과 인품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니 고개

68 「皇室をより身近に…情報発信強化へ宮内庁に広報室, 初代室長に藤原麻衣子氏」, 『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www.yomiuri.co.jp/koushitsu/20230401-OYT1T50032/>(최종 검색일: 2023. 11. 30.).

를 가웃거리게 만든다. 결국 미디어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마코 공주의 결혼에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던 황실의 이상적인 모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한 듯하다. 마코 공주의 결혼이 쏘아 올린 공은 미디어와 황실이 확실하게 변화된 관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주간지를 비롯한 일본의 미디어는 이번 마코 공주 스캔들에서 이익과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황실의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일 뿐이라는 방패를 앞세우면, 고통받는 스캔들 당사자나 ‘잡음’에 피로를 느끼는 이들은 무시한 채 조회 수와 시청률을 사냥해도 자신들이 치를 댈 것보다는 달콤한 이익이 더 크다는 확신이다. 『주간여성 프라임』은 고무로 부부가 일본을 떠나면서 그들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면 허탈할 것 같다는 “고무로스”(コムロス, 고무로와 상실을 뜻하는 영단어 loss를 결합한 조어) 상태에 빠진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⁶⁹ 하지만 누구보다 “고무로스”를 느낄 것은 주간지 미디어 자신들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고무로 부부가 뉴욕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 미디어는 그곳까지 건너가 부부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반론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황족과 그 약혼자가 아닌 ‘민간인’ 부부의 사생활을 대상으로 한 보도 행위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정당화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69 「小室圭さん着用で話題「ダース・ベイダーTシャツ」がフリマアプリで高額転売」, <https://www.jprime.jp/articles/-/2253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筑摩書房, 2001.
渡辺みどり, 『美智子皇后と雅子妃新たなる旅立ち』, 講談社, 1993.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 김보경

安積明子, 『眞子内親王の危険な選択: 皇統を揺るがす一大事』, ビジネス社, 2021.
李美淑ほか, 『いいね! ボタンを押す前に: ジェンダーから見るネット空間とメディア』, 電子書籍版, 亜紀書房, 2023.
奥野修司, 『マコクライシス: 「眞子さんの乱」で見えた皇室の危機』, 日刊現代, 2022.
香山リカ, 『なぜ眞子さまのご結婚はバッシングされたのか: 皇室女子と「個人の意思」』, 秀和システム, 2021.
香山リカ, 『皇室女子: 鏡としてのロイヤルファミリー』, 秀和システム, 2019.
河西秀哉, 『近代天皇制から象徴天皇制へ: 「象徴」への道程』, 吉田書店, 2018.
桜井大子, 『雅子の「反乱」: 大衆天皇制の〈政治学〉』, 社会評論社, 2004.
篠田博之, 『皇室タブー』, 創出版, 2019.
藤澤志穂子, 『学習院女子と皇室』(新潮新書), 新潮社, 2023.
文藝春秋 編, 『秋篠宮家と小室家』(文春新書), 文藝春秋, 2022.
保阪正康, 「象徴天皇制の「聖」と「俗」」, 『文芸春秋』 99巻 12号, 文芸春秋, 2021.
保阪正康, 「新 皇室論(上) 皇室は反論権を持つべきなのか: 眞子さん結婚問題, 秋篠宮会見の歴史的深層」, 『サンデー毎日』 100巻 63号, 毎日新聞出版, 2021.
松下圭一, 「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巻 5号, 中央公論新社, 1959.
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吉川弘文館, 2020.
水間政憲, 『ひと目でわかる皇室の危機: 天皇家を救う秘中の秘』, ビジネス社, 2019.
南博, 「天皇制の心理的地盤」, 『思想』 336号, 岩波書店, 1952.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 = 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講談社選書メチエ), 講談社, 2022.
茂木謙之介, 『表象天皇制論講義: 皇族 地域 メディア』, 白澤社, 2019.
茂木謙之介, 『表象としての皇族: メディアにみる地域社会の皇室像』, 吉川弘文館, 2017.
森暢平, 『天皇家の恋愛: 明治天皇から眞子内親王まで』(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2022.
森暢平, 『近代皇室の社会史: 側室・育児・恋愛』, 吉川弘文館, 2020.
森暢平, 「メディア天皇制論: 「物語」としての皇室報道」, 吉田裕・瀬畑源・河西秀哉 編, 『平成の天皇制とは何か: 制度と個人のはざままで』, 岩波書店, 2017.
安田常雄, 「象徴天皇制と民衆意識: その思想的連関を中心に(報告)」, 『歴史学研究』 621号, 續文堂出版, 1991.
矢部万紀子, 『美智子さまという奇跡』(幻冬舎新書), 幻冬舎, 2019.
吉見俊哉, 「メディアとしての天皇制: 占領から高度成長へ」, 網野善彦ほか 編, 『岩波講座 天皇と王権を考える 10 王を巡る視線』, 岩波書店, 2002.

- 「秋篠宮家「秘録」: この三年間に何が起きていたか」, 『文芸春秋』 99巻 12号, 文芸春秋, 2021.
- 「眞子さまのご結婚, 私はこう思う: 緊急アンケート 読者250人の本音」, 『婦人公論』 106巻 4号, 中央公論新社, 2021.
- Hinton, Perry R., *Stereotypes, Cognition and Culture*, Hove: Psychology Press, 2000.
- Kellner, Douglas., *Media Spectacle*, London: Routledge, 2003.
- Prusa, Igor., *Scandal In Japan: Transgression, Performance and Ritual*, Kindle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23.
- Smith, Nick., *I Was Wrong: The Meanings of Apolog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일본국헌법 번역본,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2403&AST_SEQ=2601&(최종 검색일: 2023. 11. 30.).
- 「昭和二十一年憲法 日本国憲法」, e-GOV 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최종 검색일: 2023. 11. 30.).
- 「佳子内親王殿下の国際基督教大学ご卒業に際しての文書回答(平成31年)」,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page/kaiken/show/27>(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皇室の経済」,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about/seido/seido08.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内親王殿下が記されたご結婚についてのお二人のお気持ち」,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activity/activity/03/gokekkon/okimoti.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内親王殿下に関する最近の週刊誌報道について」, 宮内庁, <https://www.kunaicho.go.jp/kunaicho/koho/taio/taio-h30-0525.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 赤田康和・杉浦達朗・貞国聖子, 「結婚報道, 週刊誌が小室家迫う理由 「公人性高い」「国民の関心事」」,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m/articles/ASPBJ5CM9PB7UTIL03J.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篠田博之, 「眞子さまの結婚宣言「お気持ち」文書の大波紋とパッシング報道の背景にある皇室タブー」,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0081509b24c0b95ef193038b0cf7771d01c17665>(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秋篠宮さま, 眞子さまの結婚「認める」誕生日の会見で」,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m/articles/ASNCY5GDYNCNUTIL05D.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多くの人が納得し喜んでくれている状況ではない」 秋篠宮さま会見全文」, 『毎日新聞』, <https://mainichi.jp/articles/20201129/k00/00m/040/334000c>(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皇室をより身近に…情報発信強化へ宮内庁に広報室, 初代室長に藤原麻衣子氏」, 『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www.yomiuri.co.jp/koushitsu/20230401-OYT1T50032/>(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全文】小室眞子さん「圭さんはかけがえのない存在」 圭さん「愛しております」結婚会見」, 『東京新聞』, <https://www.tokyo-np.co.jp/article/138990/2>(최종 검색일: 2023. 11. 1.).
- 「「脱炭素社会の実現を」 天皇陛下, 誕生日会見全文」,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224ZH0S2A220C2000000/>(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結婚, よかったと「思う」53%…読売調査」, 『読売新聞オンライン』, <https://www.yomiuri.co.jp/>

co.jp/election/yoron-chosa/20211005-OYT1T50242/(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ん 小室さん 質問への回答文書全文」,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QUE265M60W1A021C2000000/>(최종 검색일: 2023. 11. 30.).

「【ノーカット】小室圭さん, 眞子さんが結婚会見 “一方的な憶測”と厳しい言葉」, <https://youtu.be/pngmVWzMrSU?feature=shared>(최종 검색일: 2023. 11. 1.).

〈『주간여성 프라임』 기사〉

「秋篠宮家をご存知か! 眞子さまの婚約者 小室圭さん母「400万円」借金トラブル」, <https://www.jprime.jp/articles/-/1126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家が20年間にわたり引きずっている親戚間での金銭的なもめ事」, <https://www.jprime.jp/articles/-/1166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圭さんが国民感情を逆なでする背景に, “眞子さまのアイドル化”」, <https://www.jprime.jp/articles/-/1966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圭さん着用で話題「ダース ベイダーTシャツ」がフリマアプリで高額転売」, <https://www.jprime.jp/articles/-/2253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圭さんと母 佳代さんの高いネームバリュー, 国民の関心増で止まらぬ“コンテンツ化”」, <https://www.jprime.jp/articles/-/21315?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圭さん, 年末帰国せず! 眞子さまに残された「恋愛結婚」への最終手段」, <https://www.jprime.jp/articles/-/1419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小室圭さんを育てたシングルマザーの苦勞「ひとり息子に“いい教育を”」, <https://www.jprime.jp/articles/-/101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独身の女性皇族は「女性宮家」の創設で微妙なお立場に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0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祝!眞子さまと婚約 小室圭さんは菓子店勤務の母が女手ひとつで育てた「苦勞人」」, <https://www.jprime.jp/articles/-/9700?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 秋篠宮ご夫妻も介入できない「結婚一時金」は“減額されても”1億4千万円!」, <https://www.jprime.jp/articles/-/18974?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 ガッチリ体型のイケメンと横浜デート後に東横線でラブラブなご様子」, <https://www.jprime.jp/articles/-/832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強行除籍」の可能性も! 秋篠宮さま, 会見で「結婚と婚約は別」とご発言」, <https://www.jprime.jp/articles/-/1944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 結婚への固い「ご意思」と無言貫く小室親子の見立て」, <https://www.jprime.jp/articles/-/1214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の恋人 小室圭さん, 米国留学後もかかる2億5000万円の税金」, <https://www.jprime.jp/articles/-/130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の“交際報道”も皇室ジャーナリストはお相手との「ご成婚」の可能性に懐疑的」, <https://www.jprime.jp/articles/-/83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眞子さま, 小室圭さん結婚問題は2月「無期延期」発表が濃厚!“事実上破談”か」, <https://www.jprime.jp/articles/-/13029?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jp/articles/-/1707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の婚約者 小室圭さんが目指す国際弁護士とは「初年度の年収で一千万円」」, <https://www.jprime.jp/articles/-/9796?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 婚約者 小室圭さんが母が借金未返済でも養った“彫金師”恋人の存在」, <https://www.jprime.jp/articles/-/1151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 ご成婚へ最後の手段!? 「一時金」辞退を」, <https://www.jprime.jp/articles/-/12524?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に初ロマンス!? 学習院 ICUでのカレの噂と今回のお相手」, <https://www.jprime.jp/articles/-/832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三菱東京UFJ銀行』の元同僚, 職場での小室圭さんに感じた「違和感」を告白」, <https://www.jprime.jp/articles/-/10956?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元プリンセス6人 “普通の主婦”になった現在の私生活が興味深い」, <https://www.jprime.jp/articles/-/954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6人の未婚プリンセスたち「意中の男性」との今後はどう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1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기타 주간지 기사〉

- 「愛子さまの「結婚の自由」も奪いかねない岸田政権の「保守的な皇位継承」議論」, <https://jisin.jp/koushitsu/2265238/>(최종 검색일: 2023. 11. 30.).
- 「佳子さま 自室が狭すぎて荷物を収納できない…“30億円改修”秋篠宮邸で発覚したまさかの欠陥」, <https://jisin.jp/koushitsu/2207734/>(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小室圭さん裏切りのマンハッタン留学 秋篠宮ご夫妻も愕然」, <https://bunshun.jp/denshiban/articles/b681>(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小室圭さん 眞子さまとの一時金1.5億円減額 辞退の可能性」,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81018_784159.html?DETAIL(최종 검색일 2023. 11. 30.).

연구논단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인식론: ‘불편한 공존’의 균열과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 이경미

〈국문 문헌〉

- 강덕상,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호, 역사비평사, 1999.
- 강효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호, 전북사학회, 2018.
- 김강산,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 김광렬, 「21세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1923년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법의 논리 고찰」, 『한일민족문제연구』 3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다. 천황가를 상업화와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 온 미디어라는 기제는 대중의 관심과 감시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에 대한 선호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황가와의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과 천황가의 '관계 맺음'이 황후의 성격과 인품을 '창조된' 역사성과 '모순된' 도덕주의적 서사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을 양산한 것은 황후 개인의 정체성을 과편화해 소비한 결과다.

'마사코 황후 서사'의 특징은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유희적 성격을 가진 대중적 판타지라는 점이다. 판타지 세계에서 시선의 주체가 '바라보이는' 대상과 동일시하며 유희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이기도 하다. 또 마사코라는 기표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공무라는 명분을 창출해 강요해 왔다. 이러한 몰입 과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자,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폭력적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대중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일 것이다. 대중이 천황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작용 속에 마사코 황후의 서사는 '거울 이미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마사코, 기표, 판타지, 상징천황제, 시선의 권력, 거울 이미지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 김보경

이 글에서는 일본의 마코 공주 결혼 스캔들을 미디어가 다룬 방식과 이에 대한 반응 및 대응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포착되는 황실과 미디어가 맺어 온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디어가 일본 황실이 안고 있는 과제를 반영하여 이 결혼을 문제화한 방식, 둘째로 미디어에서 과열된 고무로 배성이 전개된 원인과 미디어가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의 양상, 셋째로 이번 스캔들에서 미디어 보도에 대한 황실의 태도와 그것이 레이와 이후 황실이 미디어 및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에 시사하는 바이다. 주된 분석 대상은 일본에서 황실 스캔들 보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주간지를 중심으로 한 잡지와 신문 기사다. 또한 황실이 이번 결혼 스캔들 보도에 취한 태도와 미디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국민' 여론의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무히토 천황의 생일 기자 회견, 마코 공주의 결혼 기자 회견, 유튜브에 게시된 결혼 기자 회견 영상의 댓글, 여론 조사, 그리고 주간지 보도에 대한 SNS상의 게시글 등을 분석했다.

주간지 미디어는 두 사람의 약혼 내정 이전부터 고무로를 결혼을 통해 황실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설정하고, 마코 공주에게 지급될 일시금, 즉 세금이 고무로 모자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고무로에 대해 과도한 배성이 가해지도록 만들었다. 또 미디어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황실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 결혼 스캔들이 주는 이익을 좇아 폭주했다. 그러나 이들이 방패로 삼은 통일된 '국민'의 여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론 조사나 온라인상의 게시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스캔들에서 일본 황실은 이례적으로 미디어 보도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으나, 이것이 미디어와 황실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반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마코 내친왕, 고무로 게이, 주간지, 레이와 황실, 여성 미야케, 일시금, 황실 터부, 여론

world, the viewer's playing with the object of his or her 'gaze' is in a way an act of consolation and escapism. In addition, in order to further immerse themselves in the name of 'Masako,' they have created and enforced the pretext of official duties. This process of immersion is a way of exposing the problem of the reality in which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failed to be upheld, and a way of defending oneself against such problem and consoling oneself for having to live in a violent reality. Empress Masako's narrative functions as a 'mirror image' in the semantic effe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public acceptance of the emperor system.

• **Keywords:** Masako, Signifier, Fantasy, Symbolic Emperor System, Power of Gaze, Mirror Image

Media and Royal Scandal: Focusing on Japan's Media Coverage of Princess Mako's Marriage | KIM Bokyoung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edia's coverage of Princess Mako of Japan's marriage scandal, examining the subseque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rial Family and the media. The study focuses on three main areas: the media's depiction of the marriage as reflective of broader challenges faced by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the construction and basis of the so-called 'national' public opinion in the media leading to extensive criticism; and the Imperial Family's reaction to the media coverage, exploring its implications for their interaction with media and society during the Reiwa era. The analysis centers on the role of magazines and newspapers, the key in reporting scandals involving the Imperial Family. A range of sources was analyzed to understand the Imperial Family's view on the media coverage and to assess the reality of the frequently mentioned 'national' public opinion. These sources included Emperor Naruhito's birthday press conference, Princess Mako's wedding press conference, comments from the wedding press conference video posted on YouTube, public opinion polls, and social media responses to magazine articles.

Prior to the couple's engagement, weekly media publications portrayed Komuro as a future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insinuating that the taxpayer-funded lump sum to Princess Mako would benefit him, leading to heightened media criticism. The media rationalized their coverage as serv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highlighting issues pertinent to the Imperial Family. However,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surveys and online discussions showed that the 'national' opinion purportedly represented by the media did not actually exist. Remarkably, the Imperial Family openly criticized the media's depiction of the scandal, a departure from their usual stance. Yet, this criticism appeared in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paradig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Imperial Fami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edia portrayals, public opinion,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 **Keywords:** Princess Mako, Kei Komuro, Weekly Magazine, the Reiwa Imperial Family, Female Imperial Household, Lump Sum Payment, Imperial Family Taboo (Chrysanthemum taboo), Public Opinion